

목포시 원도심 전기·통신 지중화 속도

4개 구간 2.2km 연내 완료 목표 한전·통신사와 사업비 절반 부담

목포 원도심의 전기·통신 지중화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원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통신사와 사업비(70억원)를 50%씩 부담해 지난 3월 지중화사업을 착공, 진행중이다.

사업 구간은 만호동과 유달동을 관통하는 원도심 변화로를 중심으로 4개 구간, 2.2km이며 연내 준공이 목표다.

만호동, 유달동 일대는 근대역사문화자산이 산

재한 지역으로 전선주, 통신주 등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약전 후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중화사업은 현재 근대역사2관과 경동성당 주변, 1897개항문화거리(변화로) 등지에서 주요 공정의 주관로 매설이 70% 정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주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차량통행 제한이 풀려 주민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8-10월 메인케이블 인입과 가정으로 연결하는 지선연결 작업이 진행된다. 11-12월경 기존 전선과 전선·통신주가 제거될 예정이어서 연말에

는 경관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내년초 임시포장 된 지중화구간 전체를 포장할 계획이며, 지중화사업과 연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1897개항문화거리 가로조성사업 등도 추진을 완료해 봄철 관광객 맞이할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이 원도심 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사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최소한의 불편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기자 노트

‘토야호’를 아시나요



박영길 서부취재본부 기자

목포 선창가 만호동 견해산물 상가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밤 생맥주 파티 ‘토야호(土夜好)’가 열린다. 명칭도 생소한 토야호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토야호’는 이 상가거리에서 지난해 해 동지를 틈 건맥 1897 협동조합이 정부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상가 상인회와 함께 지난 12월부터 오는 9월4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5시~밤10시까지 열리는 생맥주 파티는 상가거리 편도 1차선 200m 가량에 간이식 식탁과 의자를 무작위로 도로상에 펼쳐 놓고 노상술판으로 이어진다. 버스킹과 난타 공연, 경품증정 이벤트를 비롯해 즉석에서 노래자랑도 펼쳐진다.

술과 안주 판매가 전부인 이 행사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목포 구도심 건어물 상가 활성화 차원의 정부지원금 취지와는 사뭇 그 성격이 다르게 보인다. 더구나 코로나사태의 엄중한 시기에 술 손님 수 백 명이 방역수칙 제1조인 거리두기, 단체행동금지 등을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접객업소가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체온 측정, 방문객체크, 손 소독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코로나 감염자가 이 곳을 이용할 경우 무방비 상태로 감염이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행사가 시작되는 토요일 오후 5시 부터 이 상가도로는 일시 폐쇄된다. 노상에 마련된 간이 식탁이 도로를 점거하면

서이용객 안전사고 방지 목적의 차량 통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량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도로를 우회하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다.

한 시민은 “처음에는 목포시가 주관하는 축제라 착각 했다”며 “전국의 모든 축제들이 비대면 랜선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도 간헐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목포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난장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행사와 관련된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보건소,건설과 등 모든 부서가 업무지침을 꼼꼼히 따져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도로 통제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시 입장은 난타공연시에만 차량을 전면 통제 하고 상시 1개 차선만 이용하라는 지침을 주최 측이 확대 해석해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통제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후 행사부터는 지침대로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목포의 신홍 유희가 만호동의 토요일 저녁은 분명 애주가 들에게는 반가운 밤일 듯 싶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눈에는 토요일 밤이 마냥 좋지 않은 것 같다.

매일 쏟아지는 재난문자에 행여라도 ‘목포 확진자 발생’이라는 문구가 올라 치면 불현 듯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노심초사하는 시민의 맘을 헤아려 목포시는 ‘토야호’의 안전 점검과 방역지침 준수를 좀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ky@kwangju.co.kr

영광FC 중등부에 한빛원전 버스 1대 기증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지난 22일 영광FC 중등부에 버스 1대를 전달했다. <사진> 버스는 영광FC 중등부 축구 꿈나무들이 전국대회나 광주·전남 주말리그전, 전지훈련 등에 참여할 때 이동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영광FC는 K5리그의 광주전남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축구팀이다.

차량을 전달받은 영광FC 구단주 김준성 영광군수는 “선수들을 위해 버스를 지원한 한빛본부에 감사드리며 축구부 학생들도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구 단장도 버스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축구가 영광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이 될 수 있도록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서 영광FC는 한빛본부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이학웅 대외협력처장은 “한빛 본부는 지역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빛본부는 영광FC 중등부 차량 지원 외에도 영광지역의 예체능 꿈나무 육성을 위해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활짝 핀 원추리꽃 ...노랑계 물든 홍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가 수줍은 듯 드러난 홍도원추리로 노랑계 물들어 가고 있다. ‘홍도원추리(Hemerocallis hongdoensis)’란 학명을 가진 이 원추리꽃은 최근 개화를 시작했다. 홍도를 비롯한 남부 다도해 지방에서 서식하는 이 꽃은 자생지가 제한되어 있고,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로 남획에 의한 멸종 우려로 보호종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제공>

완도군 여름철 적조·고수온 피해 방지 총력

전복 가두리 한줄 비우기 당부 액화 산소 공급기·차광막 지원

완도군이 여름철 적조·고수온 피해 방지에 나섰다.

완도군은 최근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해역은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25℃) 대비 0.5~1℃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복 생산·유통 단체와 적조·고수온에 대비해 전복 출하 조절 방안을 협의하고 전복 가두리 한

줄 비우기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어민들에게 당부했다.

군은 적조·고수온에 대비해 액화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완도군 적조 대책 위원회도 재구성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적조 및 고수온 발생 시 즉각적인 초기 대책을 마련해 봤다”면서 “어업인들이 자기 어장 지키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양식생물 조기 출하, 양식장 관리 등을 철저히 해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어르신 무거운 짐 대신 배송해 드립니다

해남군 전통시장 도우미 운영 하루 40~50건 이용 큰 호응

“어르신 무거운 짐 배송도우미가 달려갑니다.”

해남군이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돕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5일 시장 배송 도우미 <사진>가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구매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5일 시장 배송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배송 도우미는 해남읍 5일 시장이 개설되는 1일과 6일 시장에 상주해 시장 이용객들의 무거운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 주고 있다.

주 이용객은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로 구매할 물건을 주차장, 버스 정류장까지 운반해 주며 이용 편의를 돕고 있다.

하루 40~50건에 이를 정도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배송 도우미 사업은 지금까지 3900여 건의 배송 건수를 기록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힘든 상인들과 시장 이용하시는 노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반응이 좋은 편이다”며 “내년 매일 시장이 신축되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배달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